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jy@kiep.go.kr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blee@swu.ac.kr

Alexey Kuznetsov 러시아 과학원 IMEMO
유럽연구센터 소장 및 교수
kuznetsov_alexei@mail.ru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고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됨.

- 2000~05년 동안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231억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07~11년 동안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28억 달러를 기록함.
- 2011년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며,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함으로써 러시아는 개도국 중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3%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가 필요함.

- 러시아 기업들이 대한국 직접투자를 확대할 경우 양국 기업 간의 관계 심화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는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 그동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몇몇 단편적인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90년대에 국외에서 이루어졌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러시아의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기를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는 분석 대상기업과 연구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산업별·지역별로 연구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를 띠기 시작하였음.

- 반면,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동기를 살펴보고, 대상 국가 및 지역별·산업별로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 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임.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막대한 규모로 실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음.
 - 지금까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송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 줌.

- 러시아의 실질적인 해외직접투자 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러시아의 주요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은 문화민족적 친밀성 및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 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 러시아의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금속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바, 러시아 다국적기업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음.
- 또한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의 서비스 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catch-up)’ 발전을 하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서비스 기업들은 구소련 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환기 경제에 관한 비즈니스 특징 파악 및 노하우 보유, 소련 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에 기인함.
- 따라서 러시아 서비스 기업들은 이웃 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과 잠재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총 150개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약 15%(22건)에 그쳤음. 이러한 응답률은 러시아 기업의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하였으나 과거 러

시아과학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률과 유사한 수준임.

-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러시아 해외투자 확장의 핵심 부문인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서 첨단기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됨.

-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음(표 1 참고).

[표 1]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동기

(단위: 응답 기업 수)

	전통적 동기			비전통적 동기				
	천연자원 확보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협상력 강화 포함)	기타
CIS	9	4	4	4	2	1	2	2
EU	4	5	2	10	12	3	2	0
중국	3	4	4	4	2	1	1	0
한국	0	2	0	2	5	2	3	0
북미	2	1	0	2	2	2	1	0
기타	5	2	1	2	0	1	1	0
합계	23	18	11	25	23	10	10	2

주: 기타 지역에는 터키,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남미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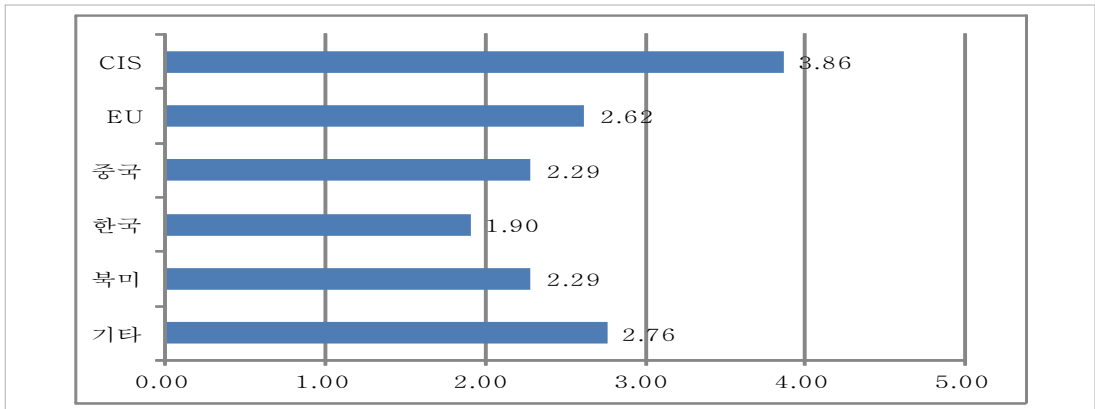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음.
-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음.

-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의 대부분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음(그림 1 참고).

-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그림 1] 국별·지역별 기업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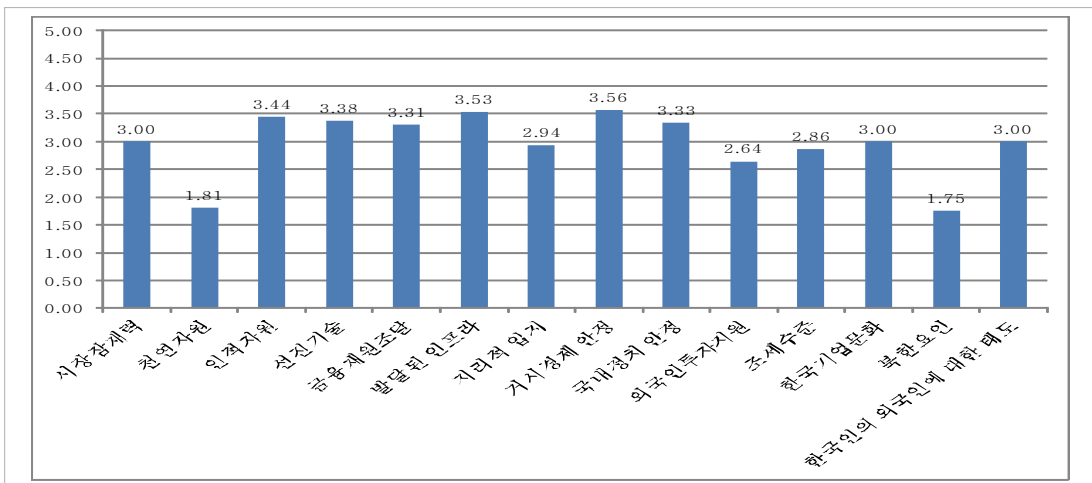


주: 1점은 전혀 전망이 없음, 5점은 매우 전망이 밝음.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의 경쟁우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음.

- 러시아 기업인들은 북한 요인과 천연자원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경쟁우위를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거시경제 안정(3.56), 발달된 인프라(3.53), 인적자원(3.44), 선진기술(3.38), 국내정치 안정(3.33), 금융자원조달(3.31)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대외정치적인 북한 요인(1.75)과 천연자원

[그림 2] 한국의 경쟁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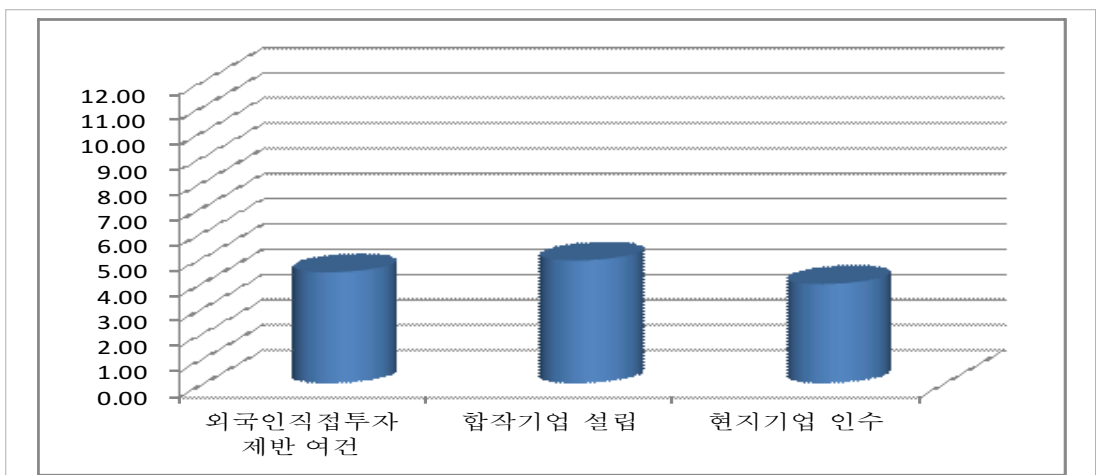
주: 1점은 매우 열악, 5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1.81)은 한국의 경쟁우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합작기업 설립 및 한국기업 인수 등의 매력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은 10점 만점 가운데 평균 4점을 기록함으로써 러시아 기업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한국에서 합작기업 설립 여건에 대한 항목은 평균 5점, 한국에 있는 기업의 인수에 대한 항목은 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 러시아 기업들의 한국 투자매력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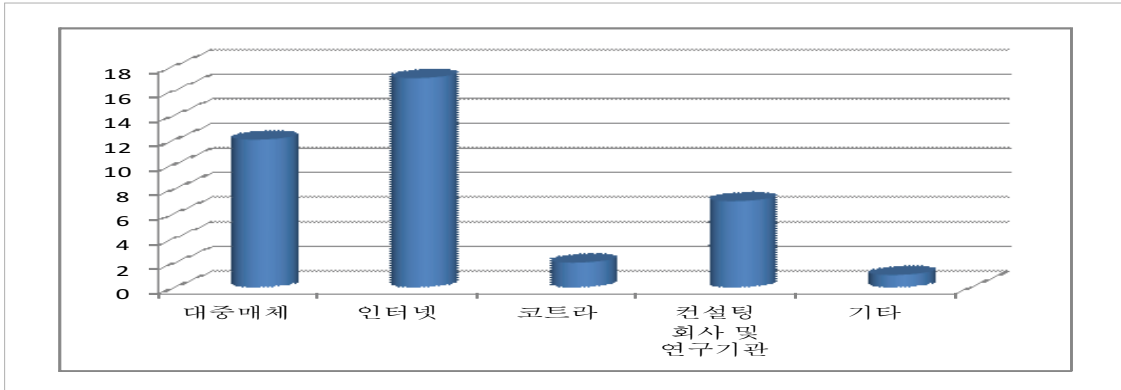
주: 1점은 매우 열악, 10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러시아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러한 사실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됨.
 - 러시아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16개사)과 대중매체(10개사)를 통해 입수하고, 그다음에는 컨설팅 회사 혹은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6개사)에서 출판하는 자료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한국에 대한 주요 정보원

(단위: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주로 해외시장 확대와 자원 확보 등 전통적인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가의 문제는 그들의 특화부문과 지리적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임.
 - 최근 ‘두 번째 대열’의 기업들은 주로 CIS 국가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상황에 민감한 원자재 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음.
- 넷째, 아직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유치 현황 및 정책평가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음.

[표 2]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신고기준, 단위: 억 달러)

연도	'92~'94 평균	'95~'97 평균	'98~'00 평균	'01~'03 평균	'04~'06 평균	'07	'08	'09	'10	'11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11	40	132	89	119	105	117	115	131	137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특이한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90% 이상이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점임.
 -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함.
 -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 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임.

[표 3] 주요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및 러시아의 직접투자 비중(신고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1,880,795	2,111,046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2,289,081
미국	2,689,764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2,372,028
네덜란드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1,011,004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920,115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650,768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1,471,446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236,282
러시아	2,506	2,424	2,526	16,001	1,426	5,054	8,764
비중	0.022	0.022	0.024	0.137	0.012	0.039	0.064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 2005~11년 동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연평균 약 552만 9,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임(표 3 참고).
-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 2000~10년 동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금액 가운데 도소매업 분야가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 운송용 기계부품이 25%(413만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음.

-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knock-down) 형태로 러시아로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 모델을 추구했음.
 - 그러나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음.
- 두 번째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임.
 -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카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시장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 설계기술,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음.
 -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 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아직 러시아 기업이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에서 사업경험이 많지 않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 앞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유망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의 유치가 유망한데, 이는 러시아 기업 중에서 방산업체들이 기술경쟁력과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기 때문임.
 -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유망함.
 -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유치기관에서는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양국의 상호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판단됨.
 -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음.
 -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 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러시아 정부기관과의 상호협력 확대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 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때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유치제도 정비

- 러시아 주재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정보 공개 및 제공

- 한-러 기업인들 간의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러시아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 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더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문제도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 사례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 예컨대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음.

